정보

개요
곡명: The Miraculous Mandarin(중국의 이상한 관리), Op. 19, Sz. 73 / BB 82 작곡가: Béla Bartók(1881–1945)
원작: Menyhért Lengyel의 판토마임 이야기 A csodálatos mandarin
작곡: 1918–1919년 초고, 1923–1924년 관현악화
전곡 초연: 1926년 11월 27일, 쾰른 오페라, Jenő Szenkár 지휘
범위: 단막 판토마임 전곡과 1927년 연주회용 판본의 관계
IMSLP: The Miraculous Mandarin (Bartók, Béla)

Wikipedia: The Miraculous Mandarin

Béla Bartók의 《The Miraculous Mandarin》은 Menyhért Lengyel의 이야기에 붙인 단막 판토마임 음악이다. 이 글은 무대에서 상연하는 전곡을 중심으로 다루고, 같은 음악의 앞부분을 독립 공연용으로 엮은 연주회용 판본도 구분한다. 세 부랑자가 소녀에게 손님을 유인하게 하고, 돈이 없는 두 남자를 내쫓은 뒤 중국 관리인 만다린이 들어온다. 소녀의 춤과 추격, 세 차례의 살해 시도, 포옹 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하나의 사건을 이룬다. 연주회용 판본은 추격에서 끝나므로, 그 뒤의 공격과 무대 밖 합창, 죽음은 전곡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Lengyel의 이야기는 도시의 빈곤과 착취, 성적 강요, 낯선 방문객을 향한 폭력을 숨기지 않는다. Bartók는 이를 여러 춤곡을 이어 붙인 발레보다 몸짓과 사건이 음악을 이끄는 판토마임으로 보았다. 빠르게 달리는 거리의 소리, 소녀가 창가에서 남자를 부르는 클라리넷, 만다린의 등장에 동반하는 금관이 각각 무대 동작을 분명히 한다. 무대의 대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현악은 인물의 행동과 그 속도가 달라지는 순간을 맡는다.

이야기에서 악보로

Lengyel은 A csodálatos mandarin을 1917년 1월 문학지 《Nyugat》에 발표했다. Bartók는 1918년 가을부터 이 이야기를 음악으로 옮겨 1919년 봄에 초고를 마쳤고, 몇 년 뒤 관현악화를 진행해 1924년에 완성했다. 그 사이에 이야기를 무대에서 어떻게 압축할지도 고쳤다. Bartók가 1925년 출판사에 보낸 편지를 대조한 연구에 따르면, 그는 이 작품에서 춤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는 이유로 ‘발레 ’보다 ‘판토마임 ’이라는 명칭을 고집했다. 실제 줄거리의 핵심은 춤 번호의 교대가 아니라 유인과 거절, 추격과 공격이 서로를 밀어내는 연속 동작에 있다.

전곡의 무대 초연은 1926년 11월 27일 쾰른에서 열렸다. Jenő Szenkár가 지휘하고 Hans Strobach가 연출했으며 , Wilma Aug가 소녀, Gustav Zeiller가 만다린을 맡았다. 초연 뒤 성적 유인과 살해 장면을 둘러싼 반발이 컸고 쾰른 시장 Konrad Adenauer가 후속 공연을 막았다. London Symphony Orchestra가 전하는

Szenkár의 후일 회고에는 야유와 휘파람이 길게 이어져 극장의 방화막을 내려야 했다는 상황이 묘사된다. 초연의 소란은 작품의 반응을 보여 주지만, 그날의 반응만으로 이후 무대와 연주회의 서로 다른 생애를 설명할 수는 없다.

Bartók는 무대 공연과 별도로 관현악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형식을 정리했다. 1924년의 발췌 장면은 Fritz Reiner가 1927년 신시내티에서 지휘했고, 1927년에 완성한 연주회용 판본은 Ernő Dohnányi가 1928년 부다페스트에서 처음 지휘했다. 앞선 발췌 공연과 뒤의 연주회용 판본 초연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검열을 겪은 작품이 공연장에서 계속 들릴 수 있게 된 경로이기도 하지만, 연주회용 판본은 단순히 무대 장면 몇 개를
생략한 축약본에 머물지 않는다. Bartók는 끊기는 자리에 별도의 종결구를 마련했다.

출판 정보와 자료

출판 연도는 어느 악보를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Universal Edition이 1925년에 낸 것은 피아노 네 손 편곡판이다 . 연주회용 판본의 악보는 1927년에 출판되었다 . 전곡의 관현악 총보는 뒤늦게 1955년에
인쇄되었는데 , 이 판에는 생략된 구간과 수정된 결말이 들어 있다. Péter Bartók가 편집한 2000년 관현악판은 빠졌던 음악을 복원하고 두 결말을 함께 제시한다. 따라서 1955년 총보와 2000년 판을 모두 ‘전곡 ’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제 연주 길이와 끝부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작품 식별과 연대는 헝가리의 Bartók Archives 작품목록을 따른다. 전곡 공연에서도 1955년 인쇄본의 컷을 따르는지, 뒤의 복원판을 택하는지에 따라 들리는 음악이 달라진다. 연주회용 판본은 전곡
앞부분의 약 3분의 2를 사용한다. 마지막 무대 장면과 합창 대신 추격의 관현악적 절정이 새 끝자리를 얻는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3035분, 연주회용 판본은 약 1921분이다. 전곡의 경우 컷과 결말 판본, 무대 동작에 맞춘 진행이 길이에 영향을 준다. 최근 전곡 음반은 도입과 세 번의 유인, 춤, 추격, 마지막 공격과 죽음을 별도 트랙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 트랙 수가 작곡가가 지정한 독립 악장 수는 아니다.

편성

Bartók Archives의 전곡 목록과 출판사 악보 정보를 기준으로 하면, 관현악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겸주는 판본에 따라 세부 표기를 확인할 항목이다.

목관: flauto 3(제 3주자는 piccolo 겸주), oboe 3(제 3주자는 corno inglese 겸주), clarinetto 3(
고음 ·저음 클라리넷 겸주), fagotto 3(일부 controfagotto 겸주).
금관: corno 4(일부 Wagner tuba 겸주), tromba 3, trombone 3, tuba 1.
타악 ·건반 ·하프: timpani, 여러 크기의 tamburo, gran cassa, piatti, triangolo, tam-tam,
xilofono, pianoforte, celesta, organo, arpa.
현악 ·합창: archi와 무대 밖 혼성합창. 합창은 전곡 후반에 가사 없는 소리로 더해진다.

연주회용 판본에는 무대 밖 합창이 없다. 악보와 기관별 편성표는 일부 겸주를 독립 악기처럼 펼쳐 쓰기도 하지만, 전곡과 연주회용 판본의 기본적인 금관 편성에 튜바 두 대를 더하는 근거는 없다. 이 작품에서 합창의

.

:

. London Symphony Orchestra .

. .

:

. London Symphony Orchestra .

.

:

. .

. .

:

. .

.

연주회용 판본의 여섯 구간

Bartók Archives의 목록은 연주회용 판본의 순서를 여섯 구간으로 적는다. ① 거리 소음과 부랑자들의 명령, ② 첫 번째 유인과 늙은 남자의 추방, ③ 두 번째 유인과 청년의 추방, ④ 세 번째 유인과 만다린의 등장, ⑤ 점점 빨라지는 소녀의 춤, ⑥ 만다린의 추격이다. 이 번호는 전곡에 여섯 개의 독립 악장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연속된 판토마임에서 어느 사건까지 연주하는지 알려 주는 안내다.

연주회에서 마지막의 추격은 관현악만으로도 강한 종결감을 낸다. 하지만 전곡을 알면 그 지점이 원래는 끝이 아니라 공격과 죽음으로 향하는 문턱임을 알게 된다. 판본을 선택하는 일은 음향의 규모만 바꾸지 않는다. 부랑자들의 폭력과 소녀의 마지막 행동을 청중 앞에 남길지 결정한다.

공연과 녹음이 보여 주는 선택

1926년 초연에 Bartók도 리허설 과정에서 참여했다. 자필 자료와 편지를 대조한 László Vikárius의 연구는 그가 공연을 준비하면서 관현악 세부를 고쳤고, 뒤에 출판사에 연주회용 판본의 컷과 새 종결구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두 형식의 구별은 공연 편의를 위해 후대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다. 다만 전곡의 어느 결말을 사용할지는 1955년 총보와 후대 복원판을 대조해야 하는 또 다른 선택으로 남는다.

1964년 Antal Doráti가 BBC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지휘한 녹음은 전곡의 합창과 마지막 사건을 보존한 초기 스테레오 자료다. 2016년 발매된 Esa-Pekka Salonen·Philharmonia의 전곡 음반에 관해 《Sunday Times 》의 Hugh Canning은 격렬한 현악 리듬과 타악, 트롬본의 거친 음색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두 녹음은
시대와 음향이 다르지만 모두 연주회용 판본 뒤에 남는 음악을 들려준다.

Gustavo Gimeno는 토론토 심포니와 전곡을 녹음한 소책자에서 , 모음곡이 자주 연주되는 탓에 합창이
들어오는 약 마지막 3분의 1을 듣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는 2024년 공연과 녹음에서 그 뒤의 음악을
들려주려고 전곡을 택했다. 이 판단은 전곡을 언제나 우선해야 한다는 규칙이 아니라, 모음곡의 성공이 원래 무대 결말을 가릴 수 있다는 한 지휘자의 공연 선택이다. 무대 없이 전곡을 연주하더라도 합창과 추격 뒤의 시간은 남으며, 반대로 모음곡에서는 Bartók가 직접 마련한 연주회용 끝맺음이 또렷이 들린다.

주요 자료

HUN-REN BTK 음악학연구소 Bartók Archives, 작품 연대기와 판본 목록

Boston Symphony Orchestra, 연주회용 판본 해설

Boosey & Hawkes, 전곡 판토마임 편성

Boosey & Hawkes, 연주회용 판본 편성

László Vikárius, 원자료와 장르 ·판본을 대조한 연구

London Symphony Orchestra, 원작 ·음향 ·초연 회고 해설

Hungarian State Opera, 초연과 후대 무대 수용

Royal Conservatory of Music 도서관, Doráti 전곡 녹음

Philharmonia, Salonen 전곡 녹음과 언론 비평

- harmonia mundi, Gimeno □□ □□ □□□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8:20 UTC by □□□
Updated 2026-10-04 10:08:20 UTC by □□□